

#해시태그

주식전략. 한대훈 / 3773-8515, handaehoon@s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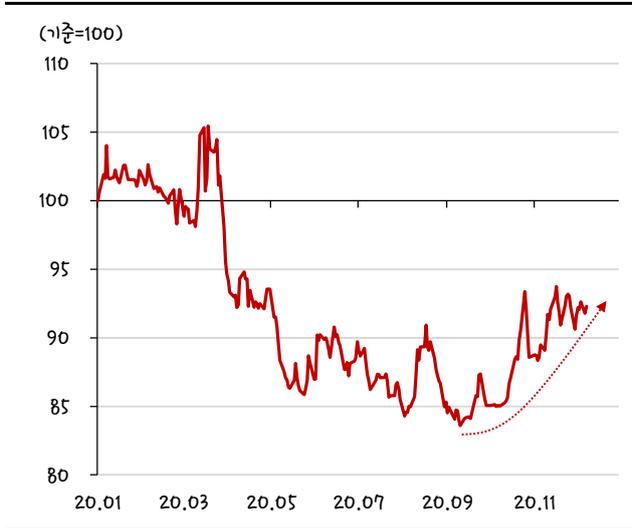


2020-12-09

해(解,답)가 없는
시장을
태연하게
그리다

코스피 중간점검

코스닥 대비 코스피 상대주가 추이



자료: Quantwise, SK 증권

코스피의 영업이익 추정치와 누적 외국인 순매수 :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



자료: Quantwise, SK 증권

코스피는 11 월 한달 동안 +14.3% 상승하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코로나 19 로 신음하던 국내증시는 어느덧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에는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과 단기과열에 따른 조정 가능성으로 방향성을 두고 상반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1 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증시에 유입되며 증시상승을 뒷받침했던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2 거래일 연속 자금유출도 신경이 쓰인다.

우선,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반도체, 2 차전지, 헬스케어 등의 대형주가 증시 상승을 견인했었다. 11 월에 한차례 밖에 없었던 1% 이상 하락이 어제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증시를 견인해 온 이들 업종의 단기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때문이다. 어제 외국인 자금 순매도 역시 이들 업종에 집중됐다.

11 월 이후 외국인 자금이 국내증시로 돌아온 배경에는 바이든 당선을 비롯한 미국 정치불확실성의 완화, EM 내 코스피의 높은 매력 등이다. 게다가 원화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러한 세가지 요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외국인 자금의 추세적인 유출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기존 의견을 유지한다.

다만, 이번주와 다음주 예정된 주요 이벤트들은 관망세를 확산시킬 수 있다. 미국 경기부양책 협상 난항(1 주일 단기 연기 법안 통과계획), 미국 선거인단 투표(12/14), FOMC(12/16), 쿼드러플위칭데이(12/10) 등은 경계감을 높일 수 있는 이벤트다. 내년까지의 상승추세는 유효하겠지만, 위 이벤트 결과에 따라 단기 정보가능성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연말 배당시즌을 앞둔 배당주가, 내년까지 바라본 전략적 측면에서는 당사가 연간전망에서 제시했던 반도체, 2 차전지, ITSW 업종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한다.